

의료봉사도 하고 꽃길도 가꾸고...

대학생 재능나눔에 장성군 '들썩'

대학생·학회 회원·병원의료진 참가 의료·집수리·식생활 교육 등 진행



대학생들 장성군 농촌 재능나눔 봉사활동 여름캠프

대학생과 학회 회원, 병원 의료진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재능나눔 캠프 덕분에 장성군이 들썩이고 있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하는 '2018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 여름캠프'가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 장성군 황룡면, 장성읍, 동화면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들만 참여한 전년도 캠프와 달리 올해 캠프에는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사회봉사단체와 한국농촌건축학회 회원 등 총 200여명이 4개분야 11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양하고 폭넓은 재능나눔 활동을 전개한다.

이들은 단체와 학교별로 나누어 의료 봉사, 집수리, 벽화그리기, 소방·전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리마인드 웨딩과 장수·가족사진 촬영, 마사지, 이·미용, 건강·식생활 교육도 진행한다. 또 독거 노인 집을 찾아 청소작업을 벌이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일손 돕기, 꽃길 가꾸기 작업도 펼친다.

장성군은 이들의 재능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봉사 대상자 선정부터 장소 섭외 등에 적극 협조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집 고쳐주기 봉사 활동 현장을 찾아 격려하기

도 했다.

지역 사회단체들의 환대와 응원도 이어지고 있다. 장성읍 여성회, 장성읍 청년회, 장성군청소년수련관 등을 비롯한 장성청년재능나눔협의회 회원들과 황룡농협, 한농연장성군연합회, 현대푸드 관계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 샌드위치와 감자, 삼겹살 등의 먹거리를 전달하며 장성의 따뜻한 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장성군은 이번 캠프에 참여자 대부분이 장성을 처음 방문할 것으로 보고 캠프 마지막날인 6일 이들을 위한 특별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이날 문화해설사와 함께 장성의 대표 관광지인 필암서원과 장성호 수변길, 축령산, 흥길동 테마파크 등을 돌며 장성의 숨은 매력을 알아갈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한꺼번에 장성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학생들 덕분에 마을 곳곳이 에너지가 넘치고 있다"면서 이번 캠프가 도농간·세대간 교류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성군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모든 참가자가 즐거운 추억을 쌓고 건강하게 돌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캠프에는 대구한의대, 동신대, 서울여자간호대, 경운대, 약림학회, UD치과, 원광대, 단국대, 강릉원주대, 서원대, 경동대, 순천제일대, 동명대, 충북대, 대한국농촌건축학회, 다솜동지재단, 서경대, 여주대, 인터플랜, 농수산대, 송실대가 참여했다.

/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서남해안 리아스식 해안·섬·갯벌

천혜의 자원으로 '명품 셋길' 만든다

전남도가 리아스식 해안, 섬, 갯벌 등 서남해안 고유 자원을 활용한 '명품 셋길' 조성을 추진한다.

국도 2호선 단절 구간 연결 등에 필요한 예산 사업비만 1조원에 육박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기본구상'에 의한 실행계획 공모에서 '서남해안 명품 경관 육성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전남도는 용역비 3억원 가운데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전남도와 목포·무안·신안 등 3개 시·군이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경관 셋길을 중심으로 해안 일주도로, 자전거·도보 탐방로, 항포구 재생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 경관 도로(America's Scenic Byway), 스위스 모빌리티, 아일랜드 '타이디 타운', 일본 '오노미치 U2' 등을 모델로 서남해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 코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9593억원에 달하는 예산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92.1%에 달하는 8834억원은 국도 2호선 단절 구간인 안좌~비금도(4.8km), 하의~도초도(3.2km), 자라~장산도(1.45km)을 연결하는 비용이어서 경관 개발보다는 SOC 사업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서남해안 명품 경관 육성 프로젝트 구상이 용역으로 첫발을 떼게 된 만큼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는 목포, 나주, 무안의 '호남선 남해열차 사업'도 선정돼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광주, 나주, 목포 간 테마 열차를 운행해 나주 로컬푸드 팩토리 등 역사 인근마다 특색있는 시설을 조성해 마을 재생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예산 사업비는 119억원이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5knj@

광주형 청년일자리, 중앙-지방 손잡는다

행정안전부, '청년드림' 적극 지원 지자체 사업 확정 후 광주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광주 청년드림을 방문해 정책방향은 논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광주형 청년일자리 시책인 '청년드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남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청년드림 일 경험 현장을 방문해 청년참여자들과 사업장 대표, 운영기관 매니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광주청년드림'은 지역 미취업 청년들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역량을 쌓아 민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에게는 월급 120만원을 4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나해부터 광주시가 추진해오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선도사례로 제시돼 올해 하반기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대됐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 500명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41억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자체 사업 확정 후 처음으로 광주 청년드림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 청년들은 "청년드림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기대된다"며 "참여 기간과 횟수를 연장해서 취업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교육사회적기업 포인트의 양승주 대표는 "사회적기업의 임금여건이 높지 않

다 보니 청년드림 일 경험 종료 후 채용 의사를 밝혀도 청년들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해소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전국 확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봉채영 기자

광주지방조달청장, 우수 중소기업 현장 방문

박정환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지난 4일 보성군에 소재한 신화테크(대표이사 김지영)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활동을 벌였다.

신화테크는 스틸그레이팅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으로 '17년 공공 조달시장에서 22억원의 납품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지속적

인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조달업무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다.

박정환 청장은 임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일선에서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이 지역경제의 희망"이라고 격려하고,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공공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한 기업의 모범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롯데백화점 광주점

세일 속 세일 '썸머 박싱 위크' 진행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세일 속 또 다른 득템 찬스를 얻을 수 있는 '썸머 박싱 위크'를 5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박싱위크' 기간에 1년에 단 한번 혹은 두번만 진행되는 초특가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우선 9층 접점시장에서는 오는 10일까지 '1년에 단 한번! 와코루 란제리 대전'이 열린다.

1층 행사장에서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1년에 단 두번만 진행되는 '과슬 시계 초특가전' 진행된다. 상품별로 30%~5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지하 1층 행사장에서는 7월 4일부터 8일까지 여름에 만나는 '국제모피 페스티



발'이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최상주 영업지원 팀장은 "세일 속 세일라는 테마로 1년 중 가장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특별히 마련했다"라며 "실속 있는 쇼핑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전남기술창업지주회사 'CEO' 공개 채용

전남기술창업지주회사가대표이사(CEO)를 공모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기술창업지주회사의 기술창업과 기술사업화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역량 있는 CEO를 공개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5일부터 8월3일까

지다.

응모자격은 정부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기술·경영 및 행정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경제·산업분야 전문가다.

대학·연구소에서 부교수 이상, 대기업 이사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급 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 등이 있어야 한다. 임기는 3년, 보수는 연 9000만원 내외다.

8월13일부터 24일까지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등을 통해 9월3일 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전남기술창업지주회사는 전남지역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지적 재산권을 산업화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